

깨달음으로 이끄는 진리의 '數'

法數로 배우는 불교

1

연재를 시작하며

명상고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움직임 없는 마음을 세우라는 뜻의 일주문이나 일체법을 평등히 보라는 의미의 불이문,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해탈문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수전과 같은 큰 법당을 마주하게 되는데 법당에는 그곳에 맞는 삼존 불이 여러 모습을 한 탱화와 함께 모셔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당 주변에는 아귀와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 친다는 법고, 운관, 법종, 목어 등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사물(四物)이 갖춰져 있다. 불자는 으레 법당에 들어서

면 오체투지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 후 준비해 간 향, 등, 쌀, 꽃, 과일, 옷 등의 여섯가지 공양물(법공양)을 올린다.

또한 법당 밖에는 절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 서 높이 세운 찰간, 불을 밝히는 석등,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된 탑 같은 것이 설치되고 주변으로는 관음전, 지장전, 응진전과 함께 산신각, 칠성각과 같은 소규모의 전각들이 배치돼 있다. 역시 이러한 법당과 전각들에는 벽의 안쪽에 수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탄생과 입멸과정을 여덟단

계로 그린 팔상도, 아홉계로 이루어졌다는 극락정보의 모습을 그린 구품정토도(九品淨土圖), 잠선하는 수행자가 도를 깨닫기까지의 열가지 과정을 소를 찾는 모습에 비유하여 그린 십우도(十牛圖)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절을 자주 찾는 불자들이라면 익히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절의 가시적인 갖가지 구조물과 문양 그리고 의식속에는 어떤 의미있는 숫자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불자는 그리 흔치 않다. 그 숫자는 바로 부처님이 우리



이 제 열
(유마선원장)

삼보·사성제·팔정도 등 교리 숫자로 표현 증일아함경 一法부터 법문수따라 편찬

증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려는 교사의 숫자일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 증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실행의 숫자일 때도 있다. 더구나 부처님이 설한 경전들을 펼쳐 보면 수많은 숫자들이 어떤 용어 앞에 붙어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불경을 이해하는데

것은 불경에 나오는 숫자를 이해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숫자가 달린 불교용어가 매우 많은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법수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

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바라 본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한 분석과 관별의 결과를 증생들에게 가르쳐 줄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증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가지 방법들을 증생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온갖 증생들은 탐욕을 끊지 못해서 여섯갈래의 길에 들어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나니, 응당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도를 닦아 거룩한 열반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했을 때 앞의 여섯이라는 숫자는 법을 관별하신 법수이고 뒤의 여덟이라는 숫자는 실천을 요구하신 법수이다. 그러나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불교용어 대부분이 그 앞에 법수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효는 불교를 평생 연구한 학자라도 다 알지 못할만큼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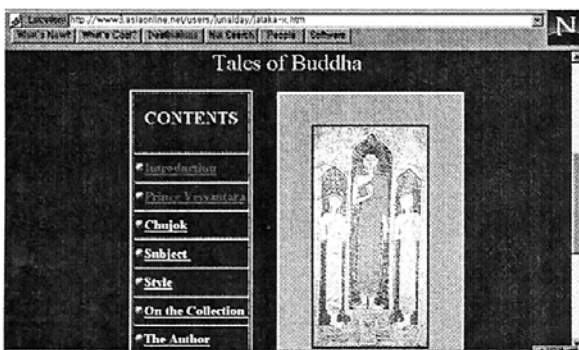
(증일아함경)의 경우 일법(一法)에서 십법(十法)까지의 법문 수(數)를 따라 편찬된 경으로 오계(五戒) 팔만(八難) 십만(十念) 등의 사항에 관해 오십이품(五十二品)으로 설함으로써 법수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삼계(三界) 오온(五蘊) 육도(六度) 십이인연(十二因緣) 등 불교교리와 연결돼 있는 법수는 중국 명나라 스님의 법수사전 대명법수(大明法數)에서 유래했다고 전해



○8만은 많은 수를 상징하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을 팔만대장경이라 한다.

로 설함으로써 법수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삼계(三界) 오온(五蘊) 육도(六度) 십이인연(十二因緣) 등 불교교리와 연결돼 있는 법수는 중국 명나라 스님의 법수사전 대명법수(大明法數)에서 유래했다고 전해

지고 있다. 앞으로 1년동안 법수가 들어있는 불교용어를 차례로 살핌으로써 독자들이 불교를 쉽고 바르게 이해하는데 자기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 전생담이 표현된 그림을 아울러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홍콩에서 개설한 '부처님 이야기' (Tales of Buddha)는 태국에서 전래된 자타카(Jataka) 즉 부처님 전생담이 형상화 된 25점의 그림을 모아놓고 불자 네티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대부분은 태국의 라타나코신 시대에 그려진 고대 불교미술 작품이다.

고대 태국의 예술들은 대부분 부처님 전생담으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태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자타카는 총 547개. 이 중에서 태국의 종교·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림을 엄선해 '바왕의 유혹을 뿌리치는 부처님' '소연화왕의 전생' '바현사 왕자의 전생' 등 10

전생담 태국 고대미술과 함께 감상

여종을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 이야기'를 개설한 J.알데이시(미술비평가, 홍콩)는 '태국의 고대미술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 전통과 도덕적 가치에 헌신하게 한다'며 태국 불교미술을 평가했다.

평면적 구도 속에서 마스크를 쓴 듯한 인물이 등장하는 태국의 불교미술은 현란한 기교의 그림과 비교해 거칠고 서늘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인간 본래의 감성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태국 불교미술이 지닌 고귀함과 미천함의 교감 속에서 내면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신비감을 맛볼 수 있다.

한편 이 사이트에서는 태국 불교미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처님의 십업(十業)> <태국의 전통미술> 등과 같은 참고도서 7종을 소개하고 있다.

이곳의 웹주소는 'http://www3.asiaonline.net/users/junalday/jataka-x.htm'이다. <육>

日백제관음 佛 나들이

루브르박물관 전시

일본 최고의 국보로 꼽히는 '백제관음' 불상이 프랑스에서 전시된다.

일본과 프랑스 정부는 올해 프랑스에서 열릴 '일본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백제관음을 프랑스로 반출키로 합의하고, 백제관음을 소장하고 있는 법흥사와 최종협의를 벌이고 있다. 반출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백제관음'은 오는 4월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는 '일본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루브르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51년 일본이 국보로 지정한 백제관음은 엄격한 표정의 당시 불상과는 달리 온화한 미소와 우아한 자세의 조각으로 '국보중의 국보'로 불리며 담정이 그렸다는 금당벽화로 유명한 나라(奈良) 호류지(法隆寺) 대보장전(大寶藏殿)에 봉안돼 있다.



"불교분쟁 해결 세속법 의존말자"

손성교수 주장 재산·환경 효율관리제도 마련해야

한국불교는 스스로 불교계 내부의 문제를 가능한 한 세속법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손성교수(동국대 법학)는 최근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발행한 '사회과학연구' 제3호에 기고한 '한국의 불교판례의 경향과 전망'에서 1950년 이후 판례와 역경의 불교사에 대한 법적 관례는 불교계가 가야 할 일정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교수는 이승만정권의 대불교계 유지, 박정희정

권의 불교계 정화, 전두환정권의 법난, 그 이후 계속된 종교로서의 불교의 몰이해와 차별정책 등을 열거하고, 이는 불교계의 분열을 야기시킨 사건들이며, 결국 근대법제에서 확립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헌무효확인소송,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가처분 사건 등 종헌과 관련된 소송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90년대를 전후해 불교재산과 관련된 재산소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손교수는 불교계가 불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소송 등의 전문적 소송에 충분히 대비하는 체계미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문화재 안방서 관광 美·日, 디지털영상 개발

문화재나 미술작품 등을 디지털 영상화하여 안방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이 소장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영상화한 데이터베이스 '더 싱커(The Thinker)'를 발표하는데 이어 일본도 올들어 정부 및 산학협동으로 이러한 문화디지털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33개 기업과 9개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공예품과 미술품의 영상디지털화 사업을 이미 시작한 단계이다.

또한 일본 문화청도 각종 박물관의 소장품을 영상 디지털화해 상호간에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저렴 뮤지엄 구상(Japan Museum Plan)'에 착수했다.

이 사업과 관련 도쿄국립박물관은 향후 10년안에 걸쳐 20만여 점의 화상을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도 제공되는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의 '더싱커'는 작가

이윤호 기자

佛紀 2541年 謹賀新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96.11. 5 신장개업
썩짐, 맥반석 찜질방 겸비
”

피부미용
류마티스 관절염
산후조리) 에 좋은 한증 요법

..... 문화 불 한증막

위치 : 부산시 대연4동 UN묘지 정문 앞
전화 : 051)627-6605
버스 : 25,68,78,34,134 UN묘지 정문앞 하차

이 표
소지자에
입실료
30% 할인.
1/9 ~ 3/31

불교증흥회관 개원 대법회

귀의 삼보 하소요

신정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조계종 전 종정인 송서암 큰스님께서는 10여년 전부터 김창암 큰스님을 위시해서 명도각 스님, 허봉정거사 및 법성회 신도들과 함께 "한민족 불교 증흥회"를 결성하여 북한산 증흥 사지의 복원에 진력한 결과 "복원 발굴 허가"를 득하여 복원 불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고려말 5교9산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세우신 태고 보우국사의 유업을 계승하여 한국 불교를 증흥하고자 한국불교의 중가 터인 증흥사 복원과 함께 전 불교도간의 화합과 통일을 발원하셨습니다.

뜻 있는 신도들이 서암 큰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서울종로구 가회동에 불교증흥회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교증흥회관 개원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참석으로 증흥불사의 인연공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증 흥 사 주지 명도각 합장

- 장소 : 서울 종로구 가회동 가회빌딩 2층 불교 증흥 회관
- 일시 : 1997년 1월 22일 11시
- 전화 : 02)744-0315